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

중학교 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친구는 “그럼 돈 많이 버시겠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유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일하시는데도 자식들 단과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직업이라니, 내가 왜냐고 묻자 친구는 “공무원이면 뒷돈 많이 받잖아”라고 당연한 것을 모르냐는 듯 대답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생일에 생크림 케이크가 배달되었을 당시 나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다. 배달원은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일단 배달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케이크를 받아 식탁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세요.” 언니와 나는 배달원에게 환영 인사인지 작별 인사인지 모를 말을 내뱉고는 식탁으로 달려가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손잡이 부분의 비닐을 통해 본 케이크는 황홀했다. 하얀색 크림이 디즈니 성의 지붕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빼곡히 윗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크림 지붕들 사이에는 귤, 키위, 복숭아 등의 통조림 과일들이 설탕 옷을 입고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침만 꿀꺽 삼키며,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날 꽤 늦으셨다. 언니와 나는 잠들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드디어 아버지가 케이크를 꺼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상자를 열어 케이크를 집어넣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도 대지 말고 뒤. 전화해서 내일 다시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나는 크게 실망했다. 199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 케이크는 꽤나 귀한 것이어서 내 생일날에도 유치원에서나 한 조각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물며 생일 축하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아버지 생신이니 갑작스레 찾아온 그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나는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다. 내일 다시 가져가 봤자

딱딱해져서 아무도 못 먹을 텐데. 버릴 바에야 우리가 먹는 게 나운데. 그런 간단한 사실도 모르는 아빠가 참 야속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케이크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 나는 케이크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았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케이크는 그쪽에서 보내온 함정으로 똑똑한 아버지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도 손대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말한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라 케이크에 독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컸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던지시 그때 일을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그 케이크 밑바닥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케이크 밑에서 봉투를 발견하여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의 허무맹랑한 상상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독은 케이크 속이 아니라 케이크 밑 봉투 속에 부정이라는 형태로 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타입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도, 집안을 살피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한량이었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시느라 학비는커녕 매일 수제비를 마음껏 먹을 형편조차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돈조차 없어 입시를 포기하고 독학으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다.

“내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점심에 식당에서 고깃국이 나왔어.” 아빠는 공무원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를 설명할 때면 항상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그 뒤로는 공무원은 해외로 출장도 갈 수 있어, 마음껏 교육도 받을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등등의 좋은 점들을 실컷 나열하고는 그러니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했다.

꼭 고깃국이 아니었더라도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일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

끔씩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에 실린 힘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뒷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부정을 저지르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1990년대는 촌지라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뇌물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된 공무원이었기에 괜한 부정으로 그 자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으리라.

사실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친구들이 방학 때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맞지도 않는 언니의 큰 교복을 물려받아 입어야 했을 때, 비싼 학원비 때문에 미술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양심을 포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버지가 지켰던 청렴함은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복보다, 새 교복을 입는 기쁨보다, 미술학원에 가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것 같다. 찰나의 즐거움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지만, 청렴한 아버지를 둔 것은 평생 안고 갈 자랑스러움이기 때문이다.

회사원이 된 지금, 나도 가끔 부정의 유혹을 받는다. 회사 앞에 찾아온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고 미팅했다는 거짓말로 영수증을 청구하고 싶은, 어찌다 늦게 일 어났을 때 아프다는 거짓말로 변명을 대신하고 싶은, 쌓여 있는 회사 비품들로 자취방의 생필품 찬장을 짹짹 채우고 싶은, 이런 사소하지만 부정이 분명한 유혹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린다.

“손도 대지 마.”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나 또한 앞으로도 부정의 유혹에 ‘손도 대지 않을’ 생각이다.